

전남도, 내년 예산 12.5兆 편성... 지역소멸위기 선제 대응

올해비 2.4%↑... 증가율은 감소 장기 SOC 사업 등 세출구조 조정 내달 12일 본회의서 확정 예정

전남도가 12조54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2조2462억원보다 2974억원, 비율로는 2.4%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666억원(3.8%) 증가한 9조9622억원, 특별회계는 298억원(2.7%) 늘어난 1조1386억원, 기금은 990억원(6.4%) 줄어든 1조4428억원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본예산은 2023년 11조8099억원, 2024년 12조2461억원, 2025년 12조5436억원으로, 건축 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7%, 3.7%, 2.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장기 SOC 사업, 유사·중복·연계 반복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인구 대전환의 경우 전남도 출생기 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182억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 지원 5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

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158억원, 저소득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을 반영했고, 문화·복지·의료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3억6000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1억6000만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사업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강진군은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관 증축 사업은 현 연수원 부지에 2026년까지 64실 규모의 생활관을 추가로 건립한다. 이로써 기존 2인실 40실에서 총 104실 모두를 1인실로 확대 운영이 가능해지며, 교육생 수용 능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관 증축을 통해 청렴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자 청렴 교육 1번지 강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무안군

"반려동물 놀이터 놀러오세요"

무안군은 '무안으로 오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하였다.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470번지 5400㎡ 면적에 소형견 및 대형견을 구분하여 야외 놀이시설, 녹지시설을 비롯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무안에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잦았는데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기반 마련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김해시

중 다렌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

김해시는 중국 다렌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렌시는 중국 라오닝성 라오둥반도 최남단에 있는 인구 750만명, 1만3237㎢ 면적의 항구도시로 중국 동북3성 대외교역의 관문이자 물류허브도시로 1984년 국가급경제기술통도 지정된 도시이다.

'2024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와 다렌은 올 한해 동안 한·중·일 도자교류전, 아시아의 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포항시

겨울 재난 '비상체제' 돌입

포항시는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겨울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설과 한파 피해가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다수 발생하는 만큼 이전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겨울철 자연 재난 집중 대책 기간'에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계획'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부산시, '3대 킬러 콘텐츠' 통해 강원도·경북 관광객 유치 박차

부산~강릉 ITX, 청량리 KTX 대비 콘텐츠로 도시·미식·야간관광 선정 4개 분야 12개 세부추진 과제 수립

부산시가 연말 동해안과 중부 내륙을 잇는 철도 개통에 대비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3대 킬러 콘텐츠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부산~강릉 ITX와 부산~청량리 KTX 개통을 대비해 관광객 유치 확대·관광수요 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개통 및 ITX-마음(최고 시속 150km) 운행으로 부산~강릉 소요 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단축되고, 청량리~부산 구간 완전 개통 및 KTX-이음(최고 시속 260km) 운행으로 부산~청량리 소

요 시간이 2시간50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데에 대한 시의 선제적인 조치다.

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회의에서 3대 킬러 콘텐츠로 ▲도심 관광 ▲미식 관광 ▲야간 관광을 선정했다.

도심 관광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마린시티와 동백섬,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송도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를 홍보한다. 또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지역 맛집을 홍보하고 미쉐린 레스토랑 다이닝 시리즈와 같은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울러 '별바다 부산'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철도 개통과 연계한 4개 분야 12개 세부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

공정한 이용·효율적 운영 조성

경주시가 파크골프장의 공정한 이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나선다.

이번 유료화는 파크골프장의 무분별한 이용과 시설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며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고 시설 독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이용료 징수에 따라 시설 관리 및 보수, 인력 운영 등 경주시의 재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료화 대상은 알천파크골프장과 경주파크골프 1·2구장이다. 연간 이용료는 경주시민 기준 개인 12만원, 단체 10만원이며, 65세 이상 시민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1회(4시간) 이용료는 경주시민 6000원, 타지역민 1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설 관리와 운영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시는 유료화에 앞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파크골프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시에 재정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과 함께, 시설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진주시, 농식품 1490만弗 수출계약 성과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진주시는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기간 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4개 분야에서 149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개최해 온 수출상담회는 우수 농식품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수출유망 기업과 초청된 바이어들이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식품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농산물 무역회사 등 국내 52개 수출기업들이 참가해 16개



진주시는 202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기간 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4개 분야에서 149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 43명의 해외바이어들과 상담했다. 그 결과 신선농산물 등 수출계약 210만 달러와 농산물 가공품 등 업무협약 1280만 달러 총 149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

영덕군, '소규모 관광단지' 적극 발굴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덕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적극 발굴해 활용할 방침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 규모였던 50만㎡ 이상에서 5만㎡~30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관광단지에 도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역시 3종(공공편의시설, 관광숙박업,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에서 2종(공공편의시설, 관광숙박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 또한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이에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완화돼 단기간에 조성 가능하며, 이러한 규모적 유연성으로 기존 시설과도 기능적 보완이 가능해졌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